

재창단 2년 만에...동구 복싱단 국가대표 배출 '쾌거'

페더급 이행석 1차 선발전서 발탁...동구 복싱 '새 역사' 신명훈 감독 "내년 2월 2차 선발전 대비 훈련 힘 쏟겠다"

광주 동구복싱단이 재창단 2년만에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29일 동구(청장 임택)에 따르면 동구복싱단(감독 신명훈) 이행석(56kg 페더급·22)이 최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이행석이 태극마크를 단 것은 2020년 1월 복싱단 재창단 이후 2년만이다. 동구 복싱팀은 1996년 해체됐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재건과 국내 권투 부흥을 위해 재창단했다. 이행석은 올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

싱대회' 56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월에는 제15회 전국실업복싱선수권 대회 2위에 올랐다. 신명훈 감독은 "동구복싱단은 오전 6시 30분부터 용산체육공원에서 로드워크를 시작으로 오전엔 체력운동, 오후엔 실전 위주의 스파링을 하고 야간에는 웨이트와 개인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 오고 있다"면서 "내년 2월에 있을 2차 국가대표선발전을 대비해 훈련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동구복싱단 이행석이 2022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에서 따낸 금메달을 들어보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US오픈 테니스 우승 팀, 내년 호주오픈 불참

손목 부상으로 포기

지난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우승자인 도미니크 팀(15위·오스트리아)이 부상 탓에 새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에 불참한다. 영국 BBC는 팀이 손목 부상으로 호주오픈 출전을 포기했다고 29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팀은 2020년 호주오픈에서 단식 결승에 오르

고, 그해 US오픈에서는 우승을 차지해 랭킹 3위까지 올랐다. 로저 페더러(16위·스위스), 라파엘 나달(6위·스페인),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등 '빅3'에 이어 남자 테니스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수 중 첫손에 꼽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투어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6월 마요르카 오픈에서 손목을 다친 뒤에는 아예 코트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부상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팀은 결국 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호주오픈 출전도 포기했다. 다만 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코르도바 오픈에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재활 중이다. 팀은 "호주오픈 테니스에 불참하는 게 부상에서 잘 복귀하기 위한 좋은 결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환점 돈 V리그...여자부 현대건설 독주



프로배구 여자부 현대건설 선수들이 지난 26일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IBK기업은행전에서 시즌 17승(1패)째를 거둔 뒤 '17번' 고예림의 등번호를 활용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17승 1패 압도적 1위 도로공사 10연승 달리며 2위 페퍼 박은서 빠른 성장에 희망

프로배구 도드람 2021-2022 V리그 전반기 판도는 '여자부 현대건설 독주'로 압축됐다. 현대건설은 6개 구단 체제로 벌인 2020-2021 시즌 30경기에서 승점 34(11승 19패)에 그쳐 최하위의 수모를 당했다. 올 시즌에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현대건설은 10월 17일 IBK기업은행과의 시즌 첫 경기부터 12월 3일 KGC인삼공사전까지 12연승을 내달렸다. 흥국생명이 지난 시즌 김연경·이재영·이다영 등

'국가대표 주전 라인업'을 앞세워 달성한 10연승을 넘어선 V리그 여자부 역대 개막전 포함 최다 연승 신기록이다. 현대건설은 구단 최다 연승 기록(중전 10연승)도 바꿔냈다. 2위 경쟁에서는 도로공사가 한 걸음 앞서갔다. 도로공사는 켈시 페인(등목명 켈시)·박정아 쌍포와 베테랑 센터전 정대영·배우나의 활약 속에 구단 최다인 10연승(중전 9연승)을 내달리며 전반기를 마쳤다. 지난 시즌 여자부 최초로 트레블(정규리그 1위, 챔피언결정전-컵대회 우승)을 달성한 GS칼텍스가 승점 34(11승 7패), 이소영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한 인삼공사가 승점 33(11승 7패)으로 도로공사를 추격 중이다. 흥국생명(승점 18·6승 12패)과 IBK기업은행(승점 9·3승 15패), 페퍼저축은행(승점 5·1승 17패)은 '3약'으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의 추락은 예상 밖의 일이다. 시즌 초반부터 흔들리더니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 주전 세터 조송화의 훈련 이탈이 서남원 전 감독의 경질, 함께 이탈했던 김사니 전 코치의 사임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이번 시즌부터 V리그에 합류한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도 좌중우돌하며 단 1승만 거뒀다. 신인왕 경쟁은 더 치열하다. 도로공사 세터 이윤정은 V리그 사상 최초의 '실업팀 출신 신인왕'에 도전한다. 2015년 수원전선아고를 졸업하고 프로가 아닌 실업팀 수원시청에 입단한 이윤정은 2021-2022 드래프트를 통해 도로공사에 입단했고, 도로공사 주전 세터로 활약 중이다. 레프트 정은주(흥국생명)와 박은서(페퍼저축은행)는 팀이 하위권으로 처졌지만, 빠르게 성장하며 희망을 안기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회, 체육지원사업 '전국 1위'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평가한 2021년 시도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 참여자 확대, 전 유형(지체, 시각, 청각, 지적 등) 장애인 참가, 만족도, 노력도 및 자치단체장 의지 등을 통틀어 96.61점을 받았다. 이 점수는 전남보다 여건이 좋은 타 단체보다 월등히 높다. 이번 평가는 생활체육사업에 대해 4개 항목(사업평가, 행정평가, 정책반영, 위원회 평가)으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런 성과는 생활체육팀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현장에서 장애인과 함께 호흡하는 4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 선수로 이끌기도 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장애인체육계의 영원인 전남도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위해 힘 쏟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장애인체육회, 체육시설 운영 '최우수'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2021년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우수운영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사례 공모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체육시설 부문에 지원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공모 평가결과 정부 방역수칙 준수 및 사전대응체계 마련,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로 중단 없는 장애인체육 서비스 확대 노력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용규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중단없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



서용규(왼쪽)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 부회장과 시설관리팀 직원이 2021년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우수운영 사례 공모에서 받은 최우수상 상패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발 했던 노력들이 인정 받았다"며 "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3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해피 뉴 이어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9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7관 세네카를 해피 뉴 이어, 리틀 뱀파이어 매트릭스: 리저렉션
- 8관 세네카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엔칸토: 마법의 세계, 신데렐라 2: 마법에 걸린 왕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1.04.(화)~ 29.(토)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2022. 01. 14.(금)
장소: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062-524-5086